

1963年度 目錄分委 事業計劃

目錄分科 張 一 世
委員長

우리나라의 모든 圖書館 關係者들의 熱烈한 要望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오늘날 까지 그 絕對的인 要望에 報答하지 못하였음을 먼저 깊이 謝過하는바입니다.

여러가지의 難關을 克服하기에는 우리들의 力量이 너무도 微弱하다는 것을 새삼스러이 느끼면서도 敢히 이 일을 맡았던것은 그래도 多少나마 貢獻되는바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던것입니다.

多幸히 여러 同志들의 熱烈한 後援과 激勵로 말미아마 이제 우리들 目標의 半을 여러분앞에 내 놓게 된것을 無限히 기쁘게 생각하면서도 그 속에 끼어있을 많은 誤謬를 생각할때 表現할수 없는 두려움마저 앞서곤 하는것이 率直한 제 心情입니다.

그러나 不足한 目錄規則이긴 하지만 이것이 道標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나라 目錄規則의 앞길을 밝혀 줄것을 確信하고, 또 이로 말미아마 지금까지 彷徨하던 여러 同志들에게 燈臺의 役割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目錄規則이 大體로 三部로 갈라져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지난 1월에 圖協을 通하여 發刊된것은 그 중 2部인 標目의 選定과 標目의 記入 形式 이었습니다.

標目의 選定에 對하여는 지난 1961年10月 佛蘭西 파리에서 열렸던 國際目錄會議의 決定을 充分히 參酌하였음은 勿論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數個月內에 나머지 部分인 記述目錄에 對한 規則을 完成하여야 하겠읍니다.

西洋書에 있어서는 美國 議會圖書館에서 만들어졌고 後에 美國圖書館協會에서 認定된 記述目錄規則이 全的으로 使用되고 있음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이에 反하여 우리나라나 東洋에 있어서는 이에 對한 確實된 規則이 별로 없으며 日本의 規則이 있기는 하지만 그리 完全한 것이라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여러가지의 原因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理由는 西洋에 比하여 우리가 다루어야 할 部分이 더 廣範圍하고 多種多様하다는 것입니다. 記述이 複雜하다기 보다는도 잡피를 잡을수 없는 數많은 古書를 비롯해서 西洋書까지도 다를수 있는 記述目錄이 必要하기 때문입니다.

今年 안에 이 방대한 事業이 滿足스럽게 끝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만 어떠한 線을 그어서 問題되는 것을 提示할수는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큰 事業이 短時日內에 完成될수는 없을뿐만 아니라 完成되었드레도 時日을 거듭하는 가운데 여러번 修正되고 補充됨으로써 비로소 훌륭한 規則이 만들어질것입니다.

우리나라 俗談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와 反面에 西洋俗談에

는 「百里길이면 95리를 가서 절반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俗談은 모두 좋은 敎訓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俗談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事業에 가장 適合한 敎訓이기도 합니다. 이마만침의 成果가 있었다고 해서 放心할 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거이 다 되었다고 해서 마음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事業이 한두사람만의 努力으로서 끝나는 것도 絶對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꾸준한 協力과 指導가 있어야 비로소 完成될것입니다.

이 해에는 더욱 빛나는 成果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遂!

出 刊 迫 頭

今年度 本協會의 基幹事業으로 計劃 推進되어 오던 “定期刊行物 記事索引”(1960年度分)의 그 첫째권이 今月 下旬頃에 出刊을 보게 되었다.

本書는 數年來 우리가 計劃해 오던 宿望의 圖書으로써 國內 權威있는 技術碑이 總 動員되어 國內刊 約 250餘種의 全分野에 걸친 學術 雜誌記事 總 索引集이다. 따라서 學界는 勿論 一般研究機關 其他 團體 및 個人에게도 必須의 參考書로서 各界의 期待가 集中되고 있다.